

장마전선 오르락 내리락...당분간 무덥고 다습

광주·전남 최근 10일 강우량 작년 장마철 한달치 넘어서

8호 태풍 '마리아' 북상중

불과 6일만에 지난해 장마철 한달동안 내린 강우량을 넘어선 비를 쏟아냈던 장마전선이 잠시 제주도쪽으로 물러가면서 당분간 무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은 장마기간(6월29일~7월29일) 동안 평균 강우량은 185.5mm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 강우량(291.7mm)의 63.5%

밖에 못 미치는 '마른장마'에 시달렸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다른 강수 패턴을 보이면서 장마시절이 시작된 지 10일 밖에 안됐지만 광주·전남은 지난 4일까지 268.7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지난해 장마기간 보다 83.2mm가 더 쏟아진 것이다.

기상청은 공식적으로 장마기간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년(1981년~2010년) 장마기간을 토대로 평균 32일간 장마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확장하면서 장마전선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반대로 광주·전남은 장마기간 동안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는 적게 내리고 무덥고 습한 날이 많았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장마전선의 패턴이 달라지면서 광주·전남에 집중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올 장마장선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의 비를 퍼붓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장마기간인 지난 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평균 248mm의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당분간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이 낀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수정 광주지방기상청장기예보담당은 "현재 장마전선이 제주도 인근에 머물다

오는 9일 장마전선이 광주·전남으로 다시 북상해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몇 차례 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13호 열대성 저압부가 지난 4일 밤 9시 판 남동쪽 약 190km 인근 해상에서 제8호 태풍 마리아(Maria)로 발달해 북상 중이다. 열대성 저압부는 태풍보다 한 단계형 약한 열대성 저기압의 일종이다. 기상청은 예보상으로 태풍 마리아의 진로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태풍 마리아는 최근 발생한 '강 중형' 급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돼 한반도에 진입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

/김형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4	달뜨기	00:11
해질	19:50	달질	12:28

후텁지근한 주말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23/29	보성	구름많음	21/25
목포	구름많음	23/27	순천	구름많음	22/27
여수	구름많음	22/24	영광	구름많음	22/28
나주	구름많음	22/28	진도	차차흐려져	22/27
완도	차차흐려져	22/26	전주	비운위	22/28
구례	차차흐려져	21/27	군산	구름많음	22/27
강진	구름많음	22/27	남원	비운위	22/26
해남	차차흐려져	22/27	축산도	구름많음	21/25
장성	구름많음	22/2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남부	면바다 북동~동	1.0~2.0	북동~동	1.0~2.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1.0~2.0
서부	면바다(동) 북동~동	2.0~3.0	북동~동	2.0~4.0
면바다(서) 북동~동	2.0~3.0	북동~동	2.0~4.0	

◇생황지수

주요	식중독
매우높음	자외선
중음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2:40	07:10
여수	08:22	01:50
	20:23	14:36

◇주간 날씨

7(토)	8(일)	9(월)	10(화)	11(수)	12(목)	13(금)
☁	☁	☁	☁	☁	☁	☁
20/29	23/29	23/29	22/31	23/31	23/30	23/30



호우 피해 복구 5일 광주시 북구청 건설과 도로팀 직원들이 일곡동 인도에서 최근 장맛비로 흘러내린 토사물을 치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교대 부설초 위탁급식비 학부모에 떠넘겨

급식실 공사 기간 중복 인건비 시민단체 징수 중단 촉구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가 최근 학부모들에게 6만원씩 1학기분 급식비 납부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무상급식이 시행됐고 광주 유일의 국립초등학교인 이 학교 역시 무상급식 대상학교이기 때문이다.

5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교대 부설초 등에 따르면 급식비 청구 논란이 일게 된 배경은 지난해 말로 거슬러올라간다.

학교 측이 지난 12월 급식비 증축공사에 들어가며 공사 기간에 위탁급식을 하면서다.

문제는 인건비에서 터졌다. 위탁업체에 이달까지 줘야 할 급식비 증식품비와 운영비 등을 제외한 인건비 3800만원을 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다. 시교육청은 공사 중에도 학교 급식실 조리원(5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위탁급식업체 인건비마저 주는 것은 2중 지급으로, 타학교와의 형평성, 관련 규정 위반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올 2월 학교측과 협의의 과정에서 알렸다는 입장이다.

교대부설초 급식비 청구 논란을 제기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역시 논란의 1차 책임은 학교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위탁급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결

정한다. 학교운영위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급식비 증축공사에 대한 심의조사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에 "광주교대 부설초는 급식비 징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교육청과 학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광주교대, 교육부 역시 학부모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광주교대 부설초 관계자는 "낡고 오래된 급식실을 예산지원 없이 인근 고층아파트 신축 주택조합측 지원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문제가 불거져 당혹스럽다. 시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도 학교측 애로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문제를 키운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교차로 환자사망사고 광주 구급대원 면책 청와대 국민청원 붐몰

지난 2일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던 119구급차가 교차로를 지나던 중 차량과 충돌한 사고(광주일보 7월3일자 6면)와 관련, 구급대원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구급차를 운전한 119구급대원의 처벌을 반대하는 청원이 10여건 올라와 있으며, 이중 '광주 구급대원 경찰 조사 및 처벌 억제' 글에는 1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19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신호위반이나 속도 제한 단속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119구급차량 운전자와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이 공개한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2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구급차와 스타렉스가 충돌했다.

영상에는 사고로 빙거져 나간 구급대원들이 환자에게 기어가 상태를 살피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지만 환자는 이날 오후 숨졌다.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북부경찰 관계자는 "아직 119구급차의 신호 위반 여부는 가려지지 않은 상황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천정배 의원 "기무사, 세월호 사고 관여 진상 규명해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5일 "국군기무사령부가 고위 업무와 무관한 세월호 참사에 사고 당일부터 관여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 직원 이모씨가 사고 직후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2분 청해진해운 직원 조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1분 51초간 통화했고, 이튿날 오전까지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이씨는 청해진해운 다른 직원 홍모씨에게 16일 오후 전화를 걸어 6분 54초간 통화했고, 기무사 직원 정모씨

가 16일 오후 청해진해운 김모 씨에게 메시지를 남긴 뒤 19일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검찰이 확보한 청해진해운 김모 부장의 휴대전화 주소록에는 총 15명의 기무사 직원 연락처가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4년 1월 청해진해운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기무사가 등장한다"며 "기무사와 세월호 선사와 관계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상반기 하루 7.8 건 화재 작년비 20%↓

올해 상반기 전남에서는 하루 평균 7.8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든 수치다.

5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상반기 전남에서는 모두 1409건의 화재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1772건보다 20.5% 줄었다.

인명피해는 사망 12명, 부상 44명 등 56명으로 지난해 78명(사망 11명·부상 67명)보다 28.2% 감소했다.

하지만 재산피해는 153억1000만원이

발생, 지난해(113억4400만원)보다 35%가량 늘었다.

상반기 하루 평균 7.8건의 화재가 발생해 8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셈이다.

장소별로는 비주거시설 425건(30.1%), 주거시설 277건(19.6%), 임야 274건(19.4%) 순으로 화재가 잦았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858건(60.8%)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268건(19%) 등 순이었다. /박정욱 기자 jwpark@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가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형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를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프로' **맥소'스텝'** **맥소'크리스프'** **맥소'스코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관장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책자 무료 발송
보청기의 종류·가격·시험테스트
상담·검사·구입·무이자할부 등 안내

RIE(8-16채널) 고급제품 대할인 특별행사!! 보조금으로 고급제품 무료구입!! (청각장애등급 2-6급 소지자)

365일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광주·전남 본점 **0621430-8900**
전북·전주 본점 **0631251-4999**

◆장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